

상대 일본 문헌에 보이는 어조사 「於」에 대한 고찰

-『日本書紀』를 중심으로-

안 희 정*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선행연구 및 ‘于’의 용법과 동일한 ‘於’의 용법
 3. ‘於’ 고유의 용법
 4. 고대 중국어 용법과의 비교 및 오용
 5. ‘於’의 훈독문과 현대어역의 문제
 6.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日本書紀』景行紀 12년 12월조(條)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A) 天皇則惡其不孝之甚、而誅市乾鹿文。仍以弟市鹿文、賜於火國造。(卷7 景行紀 12년12월)

景行(케이코오¹⁾)천황이 九州(큐우슈우)의 熊襲(쿠마소)를 평정할 때, 景行천황이 熊襲 梟帥(쿠마소타케루)를 죽이기 위해 그의 두 딸 市乾鹿文(이찌후카야)와 市鹿文(이찌카야)에게 비싼 선물을 주어 行宮(行宮)으로 불러들이고 市乾鹿文을 총애했다. 그러자, 市乾鹿文은 독한 술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마시게 하여 잠이 들자, 수행하고 있던 병사가 그를 죽였다. 이 때 천황이 그녀의 불효가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죽이고 동생인 市鹿文을 火國造(히노쿠니노미야쓰코)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예

* 우송대학교 초빙교수 상대일본어학

1) 일본어 우리말 적기는 'C.K.System'에 따른다.

김용옥(1992)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서울. p.365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조사 ‘於’의 용법이다. 여기에서 ‘於’는 ‘자격을 나타내는 ‘~として’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데, 상대 일본어의 ‘~に’에는 이와 같은 용법이 있다. 『萬葉集』권17에 大伴家持(오오토모노야카모찌)가 天平18년(746년) 8월에 지은 3953번 가요를 보면,

(B) 鴈我祢波 都可比爾許牟等 佐和久良武 秋風左無美 曾乃可波能倍爾(雁がねは使ひ
に來むと騒くらむ秋風寒みその川の上に)

‘雁は使いに(として)來ようと鳴き騒いでいることであろう。秋風が寒いので、その川の岸で’²⁾와 같이 ‘都可比爾’의 ‘爾’는 분명히 자격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萬葉集』권15-3676번 가요에도 같은 용법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 安麻等夫也 可里乎都可比爾 衣弓之可母 奈良能彌夜故爾 許登都導夜良武(天飛ぶ
や雁を使に得てしかも奈良の都に言告げ遣らむ)

그런데, 『日本書紀』에서 ‘に’의 표기로 쓰인 ‘於’가 과연 고대 중국어(古代漢語)의 용법에도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漢字의 나라 중국에서 ‘於’를 자격의 의미로도 사용했는가?

本稿에서는 이러한 사실 등을 포함하여 『日本書紀』내의 ‘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안희정(2004)³⁾에서는 순한문체로 알려진 『日本書紀』내의 어조사(助辭, 介詞) ‘于’에 대하여 의미론적인 용법의 분석과 특징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것은 필자가 고대 한문이라는 기존의 연구 관점에서 벗어나 고대 중국어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고대 중국어적인 관점에서 고대 중국어에서 유의어 관계에 있는 어조사 ‘于’와 ‘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日本書紀』자료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본고에서는 ‘於’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日本書紀』에 보이는 ‘於’의 의미론적인 용법의 분석과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2. 선행연구 및 ‘于’의 용법과 동일한 ‘於’의 용법

지금까지 어조사 ‘於’에 대한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築島裕(쓰키시마

2) 高木市之助外(1962) 『萬葉集四(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東京, p.194 ‘大意’를 필자가 수정함.

3) 안희정(2004) 「助辭‘于’の用字法について『日本書紀』を中心に」 『日本語文學』 第23輯, pp.51-66

히로시)4)는 헤이안시대(平安時代)의 한문혼독어에 대한 연구에서 ‘於’의 혼독은 ‘にして’이며, ‘において’라고는 읽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고, 西宮一民(니시미야 카즈타미)5)는 『古事記』에서의 ‘於’는 ‘於’의 사용 유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의도적으로 ‘於’를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内田賢徳(우지다 마사노리)6)는 ‘於’의 어순에 따라 순한 문체와 일본식 한문체 즉, ‘和化漢文’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漢譯佛典이 『古事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단, 고대 중국어에서도 어순의 관점에서는 동사가 뒤에 오는 예가 많지만, 단지 의미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어순에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西條勉(사이쥬오 쓰토무)7)는 『古事記』에 사용된 ‘於’의 구문을 다섯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으며, 小山登久(오야마 노리히사)8)는 문체적인 측면에서 상대자료를 대상으로 ‘於’를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古事記』에 대해서는 어조사 ‘於’에 대하여 어느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혼독을 비롯하여 문체적인 측면에서의 ‘於’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아직까지 『日本書紀』에 쓰인 어조사 ‘於’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古事記』의 경우에도 ‘於’ 자체에 대한 의미론적 용법에 따른 분석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於’가 과연 고대 중국어에서 쓰인 용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본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의미론적인 용법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日本書紀』 자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9)

‘于’에서와 마찬가지로 日本古典文學大系本の 『日本書紀』10)를 대상으로 어조사 ‘於’를 분석해 본 결과, ‘於’는 총 1947회가 쓰였는데 ‘於’는 ‘于’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장소, 시간, 동작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 비교 대상, 그리고 음차(音假名)에 의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소를 나타내는 ‘於’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4) 東京大學出版會(1962) 「古今集假名序と漢文訓讀」1『平安時代の漢文訓讀語につきての研究』東京大學出版 東京.
5) 編者古事記學會(1995) 「古事記の訓讀」『古事記の言葉 古事記研究大系10』高科書店 東京. pp.1-20
6) 前掲書 「古事記の文」pp.47-67
7) 西條勉(1998) 「「於-」の構文とその表記史的位相」『古事記の文字法』笠間書院 東京. pp.235-270
8) 小山登久(1979) 「上代資料に見える「於」字について-措辭の類型から見た文體の考察1」 『ノートルダム清心女子大學紀要國語國文學編』第三卷第一號・1979年3月.
9) 『日本書紀』자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다음에 발표할 ‘于’와 ‘於’의 비교 논문에서 더욱 자세히 드러날 것이다.
10) 坂本太郎外(1965~1967) 『日本書紀(日本古典文學大系)』岩波書店 東京.

- (1) 因於海中、造八重蒼柴[柴、此云府壘。]¹¹⁾籬、蹈船樁[船樁、此云浮那能倍。]而避之。(卷2 神代下 [第9段] 正文)
- (2) 伊奘諾尊·伊奘冉尊、立於天浮橋之上、共計曰、(卷1 神代上 [第3段] 正文)

와 같이 ‘於’는 목적어와 함께 동사 앞에 쓰여 부사성 수식어(狀語)를 만들거나, 또는 동사 뒤에 쓰여 보어를 만들어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를 나타낸다. 이것은 마치 현대 중국어의 ‘在’의 용법과 같은 것이다.¹²⁾ 이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예는 총 1947회의 약 37%에 해당하는 715회나 쓰여 ‘於’의 대표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 (3) 遂乃立標而合戰。於是、百濟以鉞刺墮高麗勇士於馬斬首。(卷19 欽明紀 14年10月)

와 같이 동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곳(從,由)¹³⁾을 나타내며 9예가 보이며, 셋째, 341회로 두 번째로 많이 쓰인

- (4) 秋七月甲戌朔己卯、遣蘇我大臣稻目宿禰等於備前兒嶋郡置屯倉。(卷19 欽明紀 17年7月)

와 같이 동작이 도달하는 곳(到)¹⁴⁾을 이끌어 낸다.

이상과 같이 ‘於’는 장소를 나타내는 대상을 이끌어내는 용법이 『日本書紀』 전체의 약55%인 1065예나 쓰이고 있어, ‘于’가 총 745예 중 496예로 약 67%나 쓰이고 있는 것처럼 ‘於’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용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나타내는 ‘於’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5) 秋七月、倭國今來郡言、於五年春、川原民直宮、[宮名。]登樓騁望。乃見良駒。(卷19 欽明紀 7年7月)
- (6) 然新羅人遮之於道而奪焉。其二國之怨、始起於是時也。(卷6 垂仁紀 2年是歲)
- (7) 自天皇即位、至于是歲新羅國背誕、苞苴不入、於今八年。(卷14 雄略紀 8年2月)
- (8) 以難波屯倉與每郡饘丁、給貺宅媛。以示於後、式觀乎昔。(卷18 安閑紀 元年10月)

즉, (5)는 ‘5년 봄에 川原民直宮(카와라노타미노아타이미야)가 누(樓)에 올라 멀리 바라보다가 좋은 말을 발견했다’로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在)¹⁵⁾을 나

11) 이와 같이 글꼴을 작게 한 부분은 세주(細注) 부분을 나타낸다. 이하 같다.

12) 褒於道病死，上閔借之。(《汉书·王褒传》)

13) 千里之行，始於足下。(《老子·第六十四章》)

14) 夫子至於是邦也，必聞其政。(《论语·学而》)

타내며, (6)은 ‘임나(任那)와 신라(新羅) 사이의 원한은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와 같이 동작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때(從)를 나타내며, 각각 20예와 8예가 쓰였다. (7)과 (8)은 어떤 동작이 도달하는 시간(到,至)¹⁶⁾을 나타내는데, 총 31예가 보인다. 특히 (8)은 도달뿐만이 아니라, 도달되는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간과 관계되는 것은 총 59예로,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작행위와 관련이 있는 ‘於’에는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동작행위의 주체자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한마디로 수동형의 주체자¹⁷⁾를 말한다. 즉,

(9) 六月、高麗大使謂副使等曰、磯城嶋天皇時、汝等違吾所議、被欺於他、妄分國調、輒與微者。(卷20 敏達紀 元年6月)

와 같다. 이러한 예로는 총 9예 보인다. 그런데, 주체자로 쓰인 ‘於’의 예 중에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9-1) 汝若無遣使來告、殆取蚩於天下。(卷17 繼體 元年正月)

이 예에 대하여 大系本¹⁸⁾은 ‘汝若し使を遣して來り告すこと無からましければ、殆に天下に蚩はれなまし¹⁹⁾’로 읽으면서 두주(頭注)에 원문 ‘取蚩’에 대하여 ‘取’를 수동의 조동사로 설명하고 있다. 小學館本²⁰⁾도 大系本과 마찬가지로 ‘受身の助字’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고대 중국어의 ‘取’가 조동사로도 쓰였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용법이 있는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고대 중국어의 수동문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하여 안희정(2004)²¹⁾에 의해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어조사 ‘於’에 의하거나, 둘째, 조동사 ‘爲(爲~所~), 見, 被’ 등에 의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9-2) 郤克傷於矢,流血及屨。(《左傳, 成公之戰》)/通者常制人,窮者常制於人。
(《荀子, 榮辱》)/兩身爲宋國笑。(《韓非子, 五蠹》)/嬴聞如姬父爲人所殺。(《史記, 魏公子列傳》)/吾長見笑於大方之家。(《莊子, 秋水》)/信而見疑,忠而被謗,能無怨乎?(《史記, 屈原賈生列傳》)

15) 子於是日哭, 則不歌。(《论语·述而》)
16) 主之威蓋震海內, 功彰万里之外, 声名光輝傳於千世。(《史記·范雎蔡澤列傳》)
17) 郤克傷於矢, 流血及屨。(《左傳·成公二年》)
18) 이하 日本古典文學大系本の 『日本書紀』를 ‘大系本’으로 부르기로 한다.
19) 前掲書 하권 p.20
20) 小島憲之外(1994~1998), 『日本書紀(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小學館 東京. 이하 ‘小學館本’으로 부르기로 한다. 2권 p.289
21) 安熙貞(2004) 『古代日本語の 用字法研究』 J&C 서울. pp.15-135

이와 같이 고대 중국어에서 ‘取’가 조동사로 쓰인 예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日本書紀』의 (9-1)의 예에 쓰인 ‘取’는 무엇인가?王海菜(왕하이차이 1996)²²⁾에 의하면, ‘取’는 ‘단지 ~일뿐이다, 단지 ~에 불과하다, 단지 ~뿐, 겨우 ~뿐(只是, 僅僅)’과 같은 의미를 지닌 부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9-1)은 이미 ‘於’에 의하여 ‘蚩’가 수동의 의미로 쓰인 것이고, ‘取’는 부사로 동사 ‘蚩’를 한정하는 강조의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두 주석서의 두주만이 아니라 훈독문도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체자와 정반대가 되는 것으로서 동작 행위를 오히려 받는 피주체자²³⁾를 나타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누군가에게서 물건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받는 즉, ‘주다(給)’에 해당되는 동사와 함께 쓰인 것(10. 使倭子連_{連, 未詳何姓人。}奉八咫鏡於大伴大連、而祈請曰…<卷14 雄略紀 9年5月>; 11. 冬十月己巳朔壬申、大伴室屋大連、率臣連等、奉璽於皇太子。<卷15 清寧紀 即位前紀10月>), 또 하나는 (12. 天豐財重日足姬天皇、初適於橘豐日天皇之孫高向王、而生漢皇子。<卷26 齊明紀 即位前紀>)와 같이 주체자가 피주체자에게 시집을 간다는 같은 예들을 들 수가 있는데, 모두 96예가 쓰였다. 셋째, 주로 말하는 행위와 관련된 동사와 같이 쓰이거나 요구하거나 하는 의미로 쓰여 동작이 미치는 서로 관련된 대상을 이끌어내는 용법²⁴⁾(向: 13. 物部大連、方欲發向難波館、宣勅於百濟客。<卷17 繼體紀 6年12月>; 14. 于時、霖也。素戔鳴尊、結束青草、以爲笠蓑、而乞宿於衆神。<卷1 神代上>)으로, 140예가 쓰여 약 7.2%를 점하고 있다. 넷째, 동작과 관련이 있는 대상을 나타내는 용법(對於)²⁵⁾으로 37예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5) 爰天皇愛兄媛篤溫清之情、則謂之曰、爾不視二親、既經多年、還欲定省、於理灼然。(卷10 應神紀 22年3月)
 (16) 自天皇即位、至于是歲新羅國背誕、苞苴不入、於今八年。而大懼中國之心、脩好於高麗。(卷14 雄略紀 8年2月)

그 밖에 ‘于’와 같은 용법으로는 비교대상(跟, 同)²⁶⁾을 나타내는 것(17. 時有八十萬神。皆不得目勝相問。故特勅天鈿女曰、汝是目勝於人者。<卷2 神代下>; 18. 八年春正月、太子妃春日皇女、晨朝晏出、有異於常。<卷17 繼體紀 8年正月>)이 26예 보인다. 한편, 고

22) 王海菜等編(1996)『古漢語虛詞詞典』北京大學出版社 北京. p.259

用于謂語前, 表示動作或數量仅限于某個範圍, 義即“只是”、“僅僅”。

예) 楊子取爲我, 拔一毛而利天下, 不爲也。(《孟子·盡心上》)

23) 己所不欲, 勿施於人。(《論語·顏淵》); 請勿踐女女於王, 大夫女女於大夫, 士女女於士(《國語·越語上》)

24) 叶公問孔子於子路, 子路不對。(《論語·述而》)對: 回答.; 六年, 借兵於楚伐魏。(《史記·趙世家》)

25) 且忠言逆耳利於人, 毒藥苦口利於病。(《史記·留侯世家》);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論語·述而》)

26) 周公旦者, 周武王弟也。自文王在時, 且爲子孝, 篤仁, 異於群子。(《史記·魯周公世家》)

; 蠻夷习俗雖殊於禮義之國, 然其欲避害就利, 愛親戚, 畏死亡, 一也。(《漢書·趙充國傳》)

대 중국어와는 무관한 음차(音假名)로 쓰인 예(19. 太子歌曰、於彌能姑能、耶賦能之魔柯枳、始陀騰餘彌、那爲我與蓋據魔、耶黎夢之魔柯枳。〈卷16 武烈紀 卽位前紀〉)가 총 66예 있다. (19)의 예와 같이 가요 내에 쓰인 예로는 총 55예가 있으며, 세주(細注)로 기록된 훈주(訓注)의 예가 ‘大日靈貴、此云於保比屢咩能武智。〈卷1 神代上 第五段〉/靄、此云於箇美。〈卷1 神代上 第五段〉/大己貴、此云於婁婀娜武智。〈卷1 神代上 第八段〉/碩田、此云於保岐陀。〈卷7 景行紀 12年10月〉/使主、此云於彌。〈卷15 顯宗紀 卽位前紀〉/伐本截末、此云謨登岐利須衛於茲波羅比。〈卷15 顯宗紀 卽位前紀〉/言於母亦兄、於吾亦兄、此云於慕尼慕是、阿例尼慕是。〈卷15 仁賢紀 6年9月〉/老、此云於喩。〈卷25 孝德紀 白稚5年2月〉/倭文、此云之頭於利。〈卷29 天武紀 13年12月〉와 같이 9예, 같은 세주에 보이는 인명 ‘おろげ²⁷⁾의 표기로 ‘乃遣佐伯造御室、[更名、於間關]喚馬子宿禰所供善信等尼。(卷20 敏達紀 14年3月)’와 같이 1예가 있으며, 나머지 1예는 지명표기로 ‘狐嚙斷於友郡役丁所執葛末而去。(卷26 齊明紀 5年是歲)’와 같이 ‘おう郡’에 대한 표기로 쓰였는데, 이 곳은 出雲國 동부 즉, 현재 松江市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또한 ‘於’에는 ‘于’에서는 볼 수 없는 신의 이름(神名)을 나타내는 (20. 答曰、於天事代於虛事代玉籤入彦嚴之事代神(あめにことしそらにことしそらたくしりびこいつのことしそのかみ)有之也。〈卷9 仲哀紀 9年3月〉)와 같은 예를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두 예는 음차가 아니라, 훈차(訓假名)의 예로써 이 두 예가 전부인데, ‘于’에서는 볼 수 없는 용법이다.

3. ‘於’ 고유의 용법

그런데, 고대 중국어에서 ‘於’는 ‘于’ 보다 뒤에 생긴 새로운 어조사인데, 洪成玉(홍청위 1998)²⁸⁾에 의하면,

- (21) “于”和“於”，在先秦是兩個略有區別的介詞。《尚書》《詩經》中多用“于”，很少用“於”。《左傳》中“于”、“於”并存，而且兩者的使用頻率大致相當。戰國時期的著作，如《孟子》《莊子》等，基本上用“於”，很少用“于”，而且用“于”時一般都是引用《尚書》《詩經》中的原文。漢字簡化以後，兩者一律都寫成“于”。

와 같이 ‘於’가 ‘于’를 압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속에서 ‘於’는 기존 ‘于’의 용법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용법을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된다.²⁹⁾ 그 용법으로는 첫째,

27) ‘おろげ’의 ‘ろ’와 ‘げ’는 둘 다 율류이다.

28) 洪成玉主編(1998) 『古代汉语教程』中華書局 北京. pp.421-423

29) 본 장에서는 ‘于’에는 없고, ‘於’에만 있는 용법을 ‘於’고유의 용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동작을 행하거나 혹은 상황이 발생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용법(在~方面, 在~中)³⁰⁾으로 ‘~면에서, ~점에서, ~중에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둘째, 함께 어떤 동작을 행하는 대상(跟, 同:~와 함께)³¹⁾을 이끌어내거나, 셋째,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상황이 출현하는 원인(因爲, 由于:~때문에)³²⁾을 이끄는 용법, 넷째, ‘于時’와 같이 숙어처럼 쓰인 ‘於是’³³⁾가 있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2) 別表、讚流通禮拜功德云、是法於諸法中、最爲殊勝。(卷19 欽明紀 13年10月)

(23) 秋七月、飯豐皇女、於角刺宮、與夫初交。謂人曰、一知女道。又安可異。終不願交於男。(卷15 清寧 3年7月)

(24) 屬此之時、天皇與大連、卒患於瘡。(卷20 敏達紀 14年3月)

(25) 於是、素戔鳴尊請曰、吾今奉教、將就根國。故欲暫向高天原、與姉相見而、後永退矣。(卷1 神代上[第5段] 一書第11 [第6段]正文)

(22)는 ‘이 법은 모든 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다’, 즉, 모든 법 중에서라고 하는 범위를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용법으로는 총 25예가 있다. (23)은 飯豐皇女(이이도요노히메 미코)가 처음으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 때 飯豐皇女가 어쨌든 여자의 길을 알았지만,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남자와는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대목인데, 이 예에서 ‘於’가 함께 어떤 동작을 행하는 대상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與夫初交’의 ‘與’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용법의 예는 4예가 보인다. (24)는 敏達天皇(비다쓰천황)이 임나(任那)를 재건하려고 坂田耳子王(사카타노미미코노오오키미)를 사신으로 지명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 천황과 物部弓削守屋大連(모노노베노유게노 모리아노오오무라지)가 갑자기 두창(痘瘡)에 걸려 사신을 보내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두창 때문에, 두창으로 인하여’ 병들었다는 원인을 나타내는 ‘於’의 용법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두 주석서의 훈독문을 보면, ‘患於瘡’에 대하여 똑같이 ‘かさやみたまふ’로 읽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원인을 나타내는 ‘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に’를 추가하여 ‘かさにやみたまふ’로 읽어야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인을 나타내는 ‘於’에는 4예가 있다. (25)는 숙어(成語)로 쓰인 ‘於是(ここに)’의 용법으로 총 391예로 약 20.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예도 보인다.

30) 君子食无求饱, 居无求安, 敏於事而慎於言。(《论语·学而》); 子曰:“足食, 足兵, 民信之矣。”子贡曰:“必不得已而去之, 於斯三者何先?”(《论语·颜渊》)

31) 陈穆公请修好於诸侯, 以无忘齐桓之德。(《左传·僖公十九年》)

32) 始得名於文章, 终得罪於文章。(《白氏长庆集·与元九书》)

33) 於是恩例俸赐, 常均於族人, 并置义田宅云。(《小学·嘉言第五十四》)

(26) 天皇、於茲、執矛祈之曰、必遇其佳人、道路見瑞。(卷6垂仁34年3月)/詔曰、麻呂等、少而閑雅寡欲。遂至於此、蔬食持戒。(卷30 持統 3年正月)

‘於是’와 같은 용법으로 쓰였는데, ‘茲’(7예)나 ‘此’(1예)가 사용된 것이다.³⁴⁾

마지막으로, ‘於’의 초기 용법인 동사³⁵⁾로 쓰인 예가 『日本書紀』에서도 보인다. ‘(~에 그대로)있다, 머물다’의 의미로 총 7예가 보이는데,

(27) [或本云、億計天皇之宮、有二所焉。一宮於川村、二宮於縮見高野。其殿柱至今未朽。](卷15 仁賢 元年正月)/夫君於天地之間、而宰萬民者、不可獨制。(卷25 孝德 大化2年3月)

특히 ‘夫君於天地之間, 而宰萬民者’의 경우, 어조사 ‘而’에 의하여 ‘於’가 동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두 주석서는 ‘夫れ天地の間に君として万民を宰むることば’와 같이 ‘於’를 조사 ‘に’로 읽고 있는데, 예를 들면 ‘夫れ君は天地の間にをりて’와 같이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小學館本の 현대어역 ‘そもそも天地の間に君主として万民を治めることば’도 ‘そもそも君主は天地の間にいて’와 같이 고쳐야 할 것이다.

한편, 고대 중국어에는 있으나, 『日本書紀』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법이 있다.

(28) 於諸侯之約,大王當王關中,關中民咸知之。(史記, 淮陰侯列傳)

(29) 吾欲取荊,於將軍度用幾何人而足?(資治通鑒,秦紀二,始皇帝二十一年)

(30) 齊使管仲平戎於周(史記,齊太公世家)

(28)은 동작행위의 근거를 나타내는 용법으로써, ‘按照諸侯之間的約定’ 즉, ‘제후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의 의미로 ‘於’가 쓰인 것이며, (29)는 의견이나 자문의 대상을 이끌어내는 용법으로써, ‘依將軍您估計需要多少人才够?’ 즉, ‘장군 당신의 판단에 의하면 몇 사람을 쓰면 좋겠소?’의 의미로 자문 대상의 ‘於’가 쓰인 것이다. (30)은 동작의 이익을 받는 대상을 제시하는 용법으로, ‘齊國派遣管仲爲周王平定戎’ 즉, ‘제나라는 주나라 왕실을 위하여 管仲으로 하여금 오랑캐를 평정하게 하였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34) ‘於焉’의 예도 하나 보인다.

35) 君子无終食之間违仁,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论语·里仁》)

4. 고대 중국어 용법과의 비교 및 오용

이 장에서는 고대 중국어에는 없지만, 『日本書紀』에 보이는 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예를 보도록 하자.

- (31) 二年秋七月壬辰朔、遣近江臣滿於東山道使、觀蝦夷國境。遣穴人臣鴈於東海道使、觀東方濱海諸國境。遣阿倍臣於北陸道使、觀越等諸國境。(卷21 崇峻紀 2年7月)

(31)에서 ‘於’는 자격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즉, ‘東山道/東海道/北陸道の 사신(자격)으로서 보내어’라는 뜻으로 두 주석서 모두 자격으로 읽고 있는데, 문제는 고대 중국어에서 ‘於’자가 자격의 뜻으로 쓰인 예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들어가는 말’의 (1)의 설명에서도 ‘於’가 자격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언급했는데, 이와 같이 자격의 의미로 쓰인 것은 (1)을 포함해서 여기에 제시된 3예와 함께 총 4예가 보인다. 앞서 2장과 3장에서 고대 중국어 ‘於’의 용법에 대하여 모두 제시하였는데, 고대 중국어의 ‘於’는 이와 같이 자격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자격의 의미로 쓰인 『日本書紀』내의 ‘於’는 명백하게 오용이며, 그 이유는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 일본어 ‘に’의 용법에 자격의 용법이 존재함으로써 인해서 일어난 혼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2) 由是、天皇恨欲捨於國位、令造宮於山碕。(卷25 孝德紀 白雉4年)

(32)의 ‘捨於國位’에서의 ‘於’ 또한 오용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捨’가 타동사이므로 목적어가 바로 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於’가 없어야 할 것인데 ‘於’를 쓰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천황이 천황의 지위를 버린다는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는데, 고대 중국어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는 용법이기 때문에 잘못된 용법인 것은 분명하다. ‘于’의 논문에서 언급한 완성과 미완성의 개념에 의한 설명에 따르면, 아직 천황의 지위를 버린 것이 아닌 즉, 미완성(‘欲捨’)이기 때문에 ‘於’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1947예 중에서 이와 같이 미완성의 의미로 쓰인 것은 이 예 단 하나라는 점에서 단정지어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于’에만 완성과 미완성의 구별이 있는데, 그 잔영이 이와 같이 ‘於’에도 나타난 것인지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於’의 훈독문과 현대어역의 문제

이 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於’에 대한 두 주석서에 보이는 훈독문이나 현대어역 등의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모든 주석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본격적인 검토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고, 여기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검토의 한 시도로써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33) 二年春正月癸巳朔己酉、立中蒂姬命爲皇后。甚寵也。初中蒂姬命、生眉輪王於大草香皇子。(卷13 安康紀 2年正月)

이 부분의 훈독문은 大系本(初め中蒂姬命、眉輪王を大草香皇子に生まれませり。)과 小學館本(初め中蒂姬命、眉輪王を草香皇子に生む；初め中蒂姬命は、大草香皇子との間に眉輪王を生んだ。) 모두 ‘於’에 대하여 ‘に’로 읽고 있는데, 이것은 ‘と’로 고치는 것이 더 타당하다(물론 현대어역에서는 ‘との間に’로 되어 있어 어느 정도 의미를 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의 ‘於’는 어떤 동작을 함께 행하는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2장의 (23)을 포함한 4예 모두 ‘に’가 아니라 ‘と’로 고치는 것이 좋다. 물론 ‘於’에 대하여 ‘に’로 읽는 것이 일반적인 훈독법이기는 하나, (23)과는 달리 (33)의 경우는 어색한 훈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34) 冬十月庚戌朔甲子、天皇勅大伴大連金村曰、朕納四妻、至今無嗣。萬歲之後、朕名絶矣。大伴伯父、今作何計。每念於茲、憂慮何已。(卷18 安閑紀 元年10月)

(34)에 대하여 두 주석서는 ‘於’를 ‘を’로 읽고 있다. 즉, 大系本은 ‘每(つね)に茲(これ)を念ひ’로 小學館本은 ‘茲を念ふ每(ごと)に’로 훈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念’자를 타동사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念’자는 자동사, 타동사³⁶⁾, 명사, 수사로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타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어조사가 개입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타군이 아니라 알파군에 속하는 권18에서 이와같이 어조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예문은 다음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每念, 於茲憂慮/何已。: 생각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찌 그치겠는가’와 같은 구조와, 둘째, ‘每念於茲、憂慮何已。: 이것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찌 그치겠는가’와 같은 구조이다. 즉, (34)는 원인을 나타내는 ‘於’가 쓰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구조

36) 타동사의 경우는 바로 목적어가 옴. 『史記』의 경우 ‘念+어조사(介詞)+목적어’의 예는 없음.

이든간에 두 주석서처럼 ‘於’를 ‘を’로 읽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것을 생각할 때 마다가 아니라 마땅히 ‘に’로 읽어서 ‘원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5) 是時、韓子宿禰、從後而射大磐宿禰鞍几後橋。大磐宿禰愕然反視、射墮韓子宿禰。於中流而死。(卷14 雄略紀 9年5月)

‘於’ 바로 앞을 두 주석서 모두 끊어 읽고 있는데(大系本:大磐宿禰、愕然きて反りて視て、韓子宿禰を射墮しつ。中流にして死ぬ。; 小學館本:大磐宿禰、愕然き反り視て、韓子宿禰を射墮す。中流にして死ぬ。), 이 부분은 붙여서 읽어야 할 것이다. ‘韓子宿禰(카라코노스쿠네)’를 강 중류에서 또는 강 안으로 쏘아 떨어뜨려 그는 죽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射墮~於~而死’로 동사 ‘射墮’와 ‘死’가 ‘而’로 연결되어 있으며, ‘於~而死’의 경우 ‘於’는 동사가 아니라 어조사이기 때문에 ‘而死’에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일본어역 ‘韓子宿禰を射落した。韓子宿禰は川の中で死んだ。’도 고쳐야 할 것이다.

(36) 是以、韓子宿禰等、竝轡而往。乃至於河、大磐宿禰、飲馬於河。(卷14 雄略紀 9年5月)

小學館本에서는 ‘馬に河に飲ふ(훈독문은 大系本도 같다)’로 읽고 현대어역에서 ‘馬に河の水を飲ませた’라고 했는데 ‘河で馬に水を飲ませた’로 바꾸어야 한다.

(37) 其情不可知。如何久居一處、無以制變。乃徙營於別處。(卷3 神武紀 卽位前紀戊午年 10月)

이 부분의 일본어 훈독문은 小學館本の ‘乃ち徙(うつり)て別處(ことところ)に營(いほり)したまふ’가 大系本の ‘乃ち徙(す)てて別處(ことところ)に營(いほり)す’ 보다 타당하다. 그 이유는 ‘徙’자를 전자는 옮기다(うつる)의 의미로 보고, 후자는 버리다(棄てる)로 훈을 달고 있는데, ‘徙’자는 유의어 ‘移’자가 옆으로 길게 뻗어가는 의미를, ‘遷’자가 꺾질을 남기고 안에 있는 것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반해, ‘徙’자는 글자 그대로 발(止)과 발(止)로 가다(彳)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을 질질끌면서 옮겨가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로, ‘버리다’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38) 爰日本武尊、則從上總轉、入陸奧國。時大鏡懸於王船、從海路廻於葦浦。(卷7 景行紀 40年)

‘廻’는 목적어를 바로 취하기 때문에 ‘於’가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굳이 사용한 이유

가 무엇일까? 완성과 미완성이라는 관점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 葦浦(아시노우라)를 지나가 아니라 아마도 ‘아시노우라에서 돌아 玉浦(타마노우라)를 가로질러’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於’자를 사용한 것 같다. 만일 그렇다면,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 ‘に’를 나타내기 위한 일본어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6. 나오는 말

이상과 같이 『日本書紀』에 보이는 ‘於’의 용법에 대하여 개괄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日本書紀』에 쓰인 ‘於’ 1947예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장소로 쓰인 예는 총 1065회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세분하면 동작이나 상황이 발생하는 장소가 715회(약 37%)로 가장 많고, 동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장소가 9회, 그리고 동작이 도달하는 장소가 341회로 두 번째로 많다.
- 2) 시간을 이끌어내는 예는 총 59회로 약 3%를 접하며, 세분하면 동작이나 상황이 발생하는 시간이 20회, 동작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때가 8회, 그리고 동작이 도달하는 시간이 31회이다.
- 3) 동작행위와 관련된 예는 총 282회로 약 14.5%를 보이며,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누면 각각 동작행위의 주체자 9회, 동작행위를 받는 피주체자 96회, 동작이 미치는 서로 관련된 대상 140회, 동작과 관련이 있는 대상 37회이다.
- 4) 비교대상을 나타내는 예가 26회, 고대 중국어의 용법과는 무관한 음차가 66회(가요 55회, 훈주 9회, 인명 1회, 지명 1회) 보인다.

이상 1)~4)는 ‘于’에도 보이는 용법이다.

- 5) 훈차 2회, 동작이나 상황의 발생 범위 25회, 함께 동작을 행하는 대상 4회, 원인 4회, 그리고 동사 7회가 보인다. 한편, 속어 ‘於是’는 총 391예로 약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於是’와 비슷한 ‘於茲(7회)’나 ‘於此/於焉(각각 1회)’이 보인다.
- 6) 『日本書紀』에는 동작행위의 근거·의견이나 자문의 대상·동작의 이익을 받는 대상을 나타내는 용법이 없다.
- 7) 오용(5회)으로 쓰인 예가 보이는데, 이것은 전체 ‘於’의 0.25%에 불과하다.

본고에서는 ‘들어가는 말’에서도 밝혔듯이 어조사 ‘于’와 ‘於’의 비교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로써 개괄적인 분석만을 시도하였다. 다음 논문에서는 이 두 어조사의 비교 연구를

통해 『日本書紀』의 성격을 한층 더 명확히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가도록 하겠다.

【參考文獻】

- 김용옥(1992) 『東洋學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서울. p.365
- 安熙貞(2004) 『古代日本語의 用字法研究』 J&C 서울. pp.15-135
- 안희정(2004) 「助辭‘于’의用字法について『日本書紀』を中心に」 『日本語文學』第23輯. pp.51-66
- 김원중편(1994) 『허사사전』 현암사 서울. pp.470-485
- 小山登久(1979) 「上代資料に見える「於」字について一措辭の類型から見た文體の考察1」 『ノートルダム清心女子大學紀要國語國文學編』 第三卷第一號・1979年3月.
- 古事記學會編(1995) 『古事記の言葉』 高科書店 東京. pp.8-10, p.36, pp.84-86
- 古事記學會編(1995) 「古事記の訓讀」 『古事記の言葉 古事記研究大系10』 高科書店 東京. pp.1-20
- 古事記學會編(1995) 「古事記の文」 『古事記の言葉 古事記研究大系10』 高科書店 東京. pp.47-67
- 小島憲之外(1994~1998) 『日本書紀(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小學館 東京.
- 西條勉(1998) 「「於」の構文とその表記史的位相」 『古事記の文字法』 笠間書院 東京. pp.235-270
- 坂本太郎外(1965~1967) 『日本書紀(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東京.
- 佐藤喜代治(1977) 『日本文法要論』 朝倉書店 東京. p.60
- 鈴木直治(1994) 『中國古代語法の研究』 汲古書院 東京. pp.14-18, 43-49
- 高木市之助外(1962) 『萬葉集四(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東京. p.194.
- 東京大學出版會(1962) 「古今集假名序と漢文訓讀」1 『平安時代の漢文訓讀語につきての研究』 東京大學出版 東京.
- 山口佳紀(1995) 『古事記の表記と訓讀』 有精堂 東京. p.124
- 豊福健二外譯(1992) 『中國古典讀法通論』 (朋友學術叢書) 朋友書店 京都. p.53 pp.97-101
- 洪成玉主編(1998) 『古代漢語教程』 中華書局 北京. pp.419-423
- 王海菜等編(1996) 『古漢語虛詞詞典』 北京:北京大學出版社. p.439-443

要 旨

本稿は、『日本書紀』における‘於’の意味論的な用法の分析とその特徴を概括的に検討したものである。以下に合計1947回の結果をまとめてみる。

「場所」として用いられた例は、計1065回(発生場所715回、起点9回、終点341回)で全体の約55%を占める。「時間」として用いられた例は、計59回(発生時間20回、起点8回、終点31回)である。そして、「動作行為と関係のあるもの」として用いられた例は、計282回(動作行為の主体者9回、動作行為の被主体者96回、動作の及ぶ有る対象140回、動作と関係のある対象37回)で、約15%を占める。そして、「比較対象」を表す例が26回、「音仮名」の例が66回(歌謠55回、訓注9回、人名1回、地名1回)が見られた。ここまでは‘于’にも見られる用法である。

‘於’の固有の用法としては、「訓仮名」が2回、「動作・状況の発生範囲」が25回、「共同施行対象」が4回、「発生原因」が4回用いられた。そして、「動詞」として7回、「熟語」として、「於是(391回)」、「於茲(7回)」、「於此(1回)」、「於焉(1回)」が見られた。

一方、古代中國語には用いられる「動作行為の根據」「意見や諮問の対象」「動作の利益を受ける対象」の用法は『日本書紀』では見られなかった。反面、誤用(1回)と古代中國語には存在しない「資格」を表す「日本語的な用法(4回)」が用いられたものの、頻度率は0.3%に過ぎないので、周知の通り‘於’は古代中國語の用法に準じて用いられたことが確認できた。

本稿は、すでに分析を行った‘于’と今回の‘於’との比較研究のための先行研究であり、これらを基にして、兩字の本格的な比較を行う予定である。

キーワード：‘於’の用法、場所、時間、動作行為、比較対象、訓仮名、発生範囲、発生原因、共同施行対象、日本語的な用法

투 고 : 2005. 5. 31
1차 심사 : 2005. 6. 11
2차 심사 : 2005. 7. 2

住 所 : (300-718)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17-2 우송대학교 일본어학과
電 話 : 042-630-9793
e-mail : hangose@lion.woosong.ac.kr